

광주 아파트 매매 '찬바람' 전세는 '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부동산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량·광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매매 거래가 지난해 대비 20%가량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1월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744건으로 지난해 1월 2162건보다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899건으

연초 매매 급감·전월세 전년비 큰 폭↑

매매 광고량 꾸준히 유지...매수자 우위

로 지난해 817건보다 10%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거래량 752건보다 20% 많았다.

매매 감소 대비 전세 거래 증가 현상은 광고량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1~2월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아파트 매매 광고량은 1만70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 광고는

4037건이 게재돼 전년 대비 45%가량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2865건)보다도 40% 이상 많은 수치다.

지역 부동산시장 변화에도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매매 광고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8% 가량 많은 광고량을 유

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집값 하락세 전망에 따라 매수시점을 저울질하는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매수자 우위시장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매물이 경매나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격흐름 등 추이를 잘 살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1000억 들여 목표·부산에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조성

목표와 부산에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을 갖춘 대규모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가 세워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2019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식품 신(新)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출업체 밀착 지원으로 올해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 ▲제품경쟁력 향상 및 수출기반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라는 3대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목표와 부산에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을 갖춘 대규모 수출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영세 가공업체가 모인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인 기존 12개소에서 오는 2022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대표 수출 수산물인 김과 참치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유망품목들이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해외방송 제작협찬(PPJ) 등을 통해 고급형 어묵, 굴소스 통조림 등 개발된 가공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들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과 소형·즉석식품 시장 등 신 유통망에 대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00장 한정 수량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 출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영업개발단 제품홍보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기념메달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메달'을 이날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접수, 2종의 금메달로만 출시하며 각각 1,000장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신청한 7개소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절차는 사업 부지의 적격성, 입지 조건, 직매장 운영계획 등 1차 서류평가,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전남도의 광주 시 직영매장, 나주 산포농협,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담양 봉산농협, 고서농협, 강진농협, 영광농협이다. 개소당 최대 12억 원의 지원받는다.

사업 내용은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이 100㎡ 이상인 단독매장과 층분리형 매장, 농가 레스토랑 및 교육시설, 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

위한 건축 및 토목공사, 내부미감공사, 간판 및 사인물, 냉난방 공사, 비품류 구입비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생산자의 얼굴이 있는 로컬푸드를 선호한다"며 "광주 등 대도시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608억 원, 참여 농가는 4588가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5개사에 계약해지 통보

현대·기아차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5개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의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다.

지난 1월말께 카드사에서는 연매출 5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오는 3월초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에 통신사와 유통업체에 이어 현대·기아차도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두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하고 수수료율 협상을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들은 인상 근거에 따라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계약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이날 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면서 해지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협상여지는 남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도 "유예기간과 해지 이후라도 카드사가 요청하면 수수료율 협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주 기간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고객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대차는 제안을 수용한 BC카드와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와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무 등 월동채소도매가 '폭락'

1년 전보다 최대 109.6%↓

배추와 무 등 월동채소가격이 급락했다.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50% 넘게 떨어졌고 무 가격은 100% 이상 폭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가 집계한 2월28일 기준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평균 36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7370원)보다 51.2% 낮은 수준이다. 1년 전(8580원)보다는 58.0%, 1개월 전(4380원)보다는 17.8% 떨어진 수준이다.

무(상품) 도매가격은 18kg당 평균 8160원으로 평년(1만2365원)보다 34.0% 떨어졌다. 이는 1년 전(1만7720원)보다 109.6%, 1개월 전(8720원)보다 0.1% 낮은 가격이다.

양배추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양배추(상품) 도매가격은 8kg당 평



균 4460원으로 평년(6371원)보다 29.4%, 1년 전(7300원)보다 38.9%, 1개월 전(5040원)보다 11.5%씩 하락했다.

대파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파(상품) 도매가격은 1kg당 평균 158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2193원), 1년 전(2140원), 1개월 전(1616원)보다 각각 28.0%, 26.2%, 2.2%씩 줄어든 규모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